



수신	각 언론사 과학·노동·사회부 담당 기자 등
발신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최연택]
연락처	담당: 이광오 정책위원장(010-3340-4240) 오수환 교육국장(010-6437-1032)
배포일시	2024년 12월 15일 14시 00분
제목	윤석열 탄핵, 반드시 실현시키고 무너진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드시 실현시키고
무너진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하겠습니다!**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입장문 -

어제 국회에서 재적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온 국민의 열망을 담은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한 조합원 동지들과 가족, 지인들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통과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탄핵 판결의 공은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고발된 내란죄와 권한 남용죄 등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해야하지 않은 채, 용산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윤석열은 5차 담화에서 국민의 뜻마저 저버린 채 끝까지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비상계엄을 획책했던 일당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를 공포와 무질서로 몰아넣은 윤석열 일당을 단죄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우리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또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제 현대제철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노동자 한명이 운명을 달리 했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할 세상은 대통령 윤석열 하나가 아니라 일터에서 죽지 않을 자유와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황폐화 된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자유와 독립성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멍니다. 무엇보다 국가 과학기술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를 복원하고 혁신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가 예산 삭감, 지방교부금 미지급 등으로 국가 연구개발과 지방연구개발 생태계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연구개발예산 삭감과 탄핵으로 사실상 방치 된 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하여, 공공연구기관들의 역할과 처우에 대한 혁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 내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아직도 만연해 있습니다. 노조법 2, 3조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 천명의 시설관리, 보안관리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속도라면 내년 5, 6월에는 새 정부가 들어설 것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과 후 우리의 노력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새 정부에 요구할 요구안도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함께 한 조합원 동지들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 민주언론 쟁취를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